

문헌이새의 복수



Zulu folktales
Wiehan de Jager
Michelle Kim
4
한국어 ko



Global Storybooks

globalstorybooks.net

문헌이새의 복수

Zulu folktales
Wiehan de Jager
Michelle Kim



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International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3.0>





이 이야기는 네게데, 꿀잡이새, 그리고 진질레 라는 욕심많은 젊은 사람 이야기 입니다. 진질레는 사냥을 하러 밖에 나갔어요. 갑자기 그는 네게데의 소리를 들었어요. 진질레는 꿀 생각에 입에 침이 고였어요. 그는 그의 머리 위에 나뭇 가지에 새를 볼 때까지 멈추고 주의 깊게 들었어요. “치틱-치틱-치틱,” 작은 새가 그 다음 나무에 가며 소리 냈어요. 그후로 그 새는 “치틱-치틱-치틱”하며 진질레가 따라오고 있는지 수시로 멈추며 확인했어요.

민었어요.

상선복 후, 그들은 거대한 야생 무화과 나무에도
 탕했습니다. 네게테는 미친 듯이 가지 위를 뛰어
 다녔어요. 그는 그 한 가지 위에 정착하고, 그의 머
 리를 숙여 잔잔하게 말했어요, “여깁니다! 이리
 오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잔잔하게 나무 아
 래에서 쫓겨한 하나도 볼 수 없었지만, 네게테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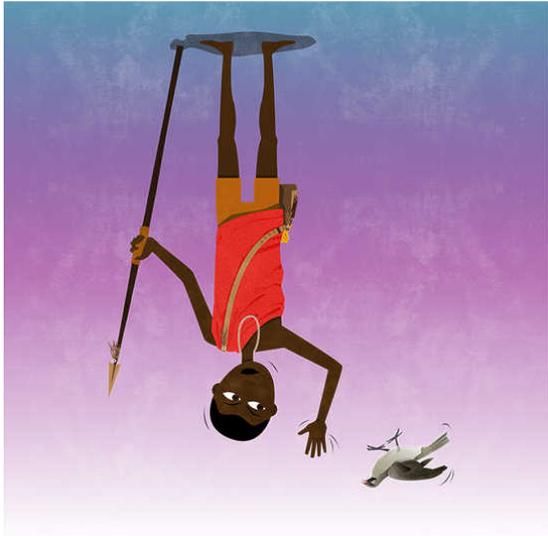


진질레는 나무 아래에서 그의 사냥 창을 내려 놓고, 마른 나뭇 가지를 모아 작은 불을 만들었어요. 불에 잘 타고 있을 때, 그는 긴 마른 막대기를 불꽃 중심에 넣었어요. 그 나무는 탈때 특히 연기를 많이 내기로 알려져 있었어요. 진질레는 식은 나무를 입에 물고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는 곧 바깥 꿀벌의 웅잉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요. 그들은 나무 속 파인곳에서 들어갔다가 나왔
 다가 했어요. 진짙레가 그들의 벌집 근처로 다가갔
 름때 그는 입에 물고 있던 나뭇가지를 벌집 속으로
 름어 넣었어요. 꿀벌들은 분노에 차서 밖으로 돌진
 했어요. 그들은 진짙레에게 고통스러운 독침을 쏘
 고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나뭇가지에 베어있는
 연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진짙레의 아들이 네게테의 이야기를 들
 으면 그들은 작은 새에 대해 조종이 있습니다. 그
 들은 꿀을 수확할 때마다, 벌꿀 덩어리를 쭈뼛
 이 새들에게 나눠주곤 합니다.





꿀벌들이 밖으로 다 나왔을 때, 진질레는 등지에 자신의 손을 밀어 넣었어요. 그는 한 움큼 벌꿀 덩어리를 집었어요. 그 꿀 덩어리는 진한 꿀이 똑똑 떨어졌어요. 그는 그가 어깨에 메고 다니는 자신의 주머니에 꿀 덩어리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그는 나무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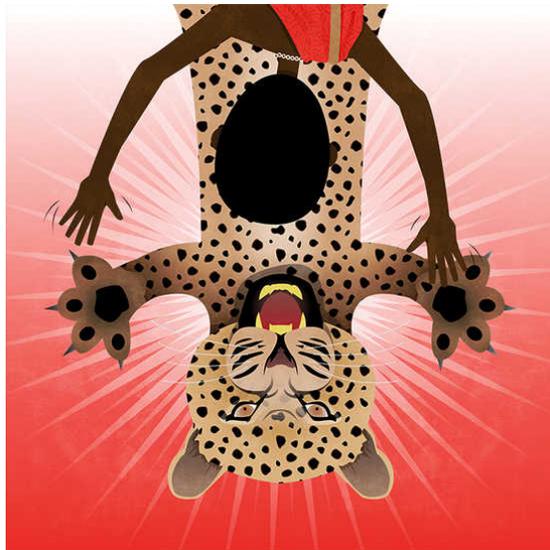


레오파드가 진질레를 공격하기 전에, 진질레는 나무 아래로 돌진했어요. 그가 너무 서둘러서 그의 나뭇가지를 놓치고, 무거운 쿵 소리와 함께 떨어질 때, 그의 발목이 뒤틀렸어요. 그는 빨리 다리를 절며 뛰어 갔어요. 다행히도, 표범은 그를 쫓아 가기에는 아직 너무 졸렸어요. 네게데, 그 벌꿀 길잡이 새는 그의 복수를 했고 진질레는 그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네게데는 진천레가 하고 있던 모든 것을 열심히 지켜 보았어요. 그는 자신이 네쥘레에게 벌룬 조각이 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의 뜻으로 벌룬 조각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게데는 가지 가지를 뚫겨가며 바닥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드디어 진천레는 나무에서 거의 내려왔어요. 네게데는 진천레 근처 바위에 자리 잡고 그의 복사를 기다렸어요.



진천레는 벌룬의 웅영 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음 이유를 묻곤 하며 나무를 뚫었어요. "어머도 벌룬은 나무 껍질에 있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그는 또 다들 가지뚫을라 했어요. 하지만 벌룬 대신, 그는 표범의 털뿔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표범은 무례하게 그녀의 잔을 범해받아서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녀는 그녀의 몸을 짧게 또고 그녀의 매우 크고 매우 튼튼한 공이 뿔을 드러내며 입을 열었어요.





그러나, 진질레는 불을 끄고 자신의 창을 집어 새를 무시하고 집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네게데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진질레! 진질레!” 진질레가 잠시 멈춰 그 작은 새를 응시하고 큰 소리로 웃었어요. “너도 꿀을 원하니 친구야? 하! 하지만 내가 모든일을 하고 벌침도 내가 다 맞았어. 왜 내가 너랑이 아름다운 꿀을 공유해야 하지?” 그리고 그는 걸어갔어요. 네게데는 분노했어요! 그를 이렇게 대하면 안되는거였어요! 네게데는 복수를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



몇 주 후 어느날 진질레는 다시 네게데의 꿀 위치 알림을 들었어요. 그는 맛있는 꿀을 기억하고, 열심히 다시 한 번 새를 따라갔어요. 네게데는 숲의 가장자리를 따라 진질레를 선도 한 후, 그는 큰 우산 가시에서 멈추고 휴식을 취했어요. “아,” 진질레는 생각했어요. “벌집이 이 나무에 있겠구나.” 그는 신속하게 작은 불을 만들어 그의 입에 탄 나뭇가지를 물고 나무를 타기 시작했어요. 네게데는 앞서 보고있었죠.